

나주 천연염색 천녀의 비끼리



News Letter of the Naju Foundation of Natural Dyeing Culture

March 2013

사람도 오방색으로 곱게 물들여질 수 있다

목련꽃 피는 4월을 앞 두고 있습니다. 4월은 청명 곡우가 낀 절기이고 봄날이 따뜻하여 만물이 화창하니 온갖 꽃들이 활짝 피고 새소리 각색이라 반가운 달입니다. 제비는 옛집을 찾아오고 꽃 사이 범나비는 분분히 날아들며 농가에서는 농사 준비에 한창이고 과일나무 접하는 바쁜 시기에 접어듭니다. 인심이 순후하고 물산이 풍부한 고장인 나주에 위치한 한국천연염색박물관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활짝 봄 기지개를 켜고 찾아오시는 관람객과 체험객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중 6만여 명의 관람객과 2만 명이 넘는 천연염색 체험객을 맞이하는 우리 재단으로서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천연염색박물관의 체험장에서 하얀 천에 각각각색으로 물이 드는 천연염색 천을 보면 문득 주나라 때 주흥사(周興嗣)가 지은 천자문의 묵비사염(墨悲絲染)이라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실이 염색 되는 것을 보고 목자가 슬퍼한다.”는 의미입니다. 묵(墨)은 목적(墨翟)으로 전국시대 송나라 사람인데 노나라 출신이라고도 하며 흔히 목자(墨子)라고 부릅니다. 남들을 사랑하고 검소함을 숭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목자전서(墨子全書)」를 지었습니다. 실이 물드는 것을 보고 탄식하기를 “푸른 것에 물들게 되면 푸르게 되고 누런 것에 물들면 누렇게 되나 사람의 본성이란 본디부터 착하지만 버릇의 물들음에 이끌려 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 마치 실은 본디 흰 것이었는데 이제 검어지면 흰 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본래 실처럼 흰 바탕이지만 실이 검게 물들면 다시 희어질 수 없음과 같이 그릇되고 나쁜 습관에 빠져들어서 마침내 참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영국 시인 셸리의 시 「사람의 철학」 중에는 “세상에 외톨이인 것은 하나도 없으며 만물은 신성한 법칙에 따라 서로

다른 것과 어울리는데 어찌 나는 당신과 합치지 못할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삶이란 어찌면 여러 가지 색상의 물감이 스며들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옷에도 채색이 되어야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스스로를 가둬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세상도 나를 가두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문을 열면 세상은 더 넓게 보일 것이며, 더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세상이 새롭게 보일 것이며, 다른 사람과 만남을 통할 때 세상은 더욱더 새롭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실은 물들이는 물감에 따라 색도 변하게 됩니다. 검정색의 물감을 사용하면 검정색으로 물이 들고, 빨간색을 사용하면 빨갱게 물이 듭니다. 그러므로 물감의 선택이나 물드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단 실이 물드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사람도 역시 물들여짐이 있으니 영광이 되고 욕이 되는 것은 그 벗하는 바에 따라 달라 집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과오를 아무리 반성하고 바른길을 가려 해도 잘못된 그 사람의 역사이며 현재에도 그 어두움이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이야기, 감동의 문화를 자주 접촉해 주어야 할 큰 이 유입니다. 우리는 묵비사염을 교훈 삼아 가족과 함께 한국 천연염색박물관을 방문해서 관람도 하고 염색체험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영규

천연염색가들에게 꿈을 심어준 陳景林씨 초청 강의



▲ 陳景林씨의 초청강의

만의 천연염색 작가 陳景林(Chen, Ching-Lin)씨 초청 강의를 가졌다.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세계 유명 천연염색 작가 초청 강습의 일환으로 2013년 3월 24일, 25일 양일간 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지원하고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인디고/인디루빈 생산작물산업화 연구사업단’에서 주관한 이번 초청 강의에는 천연염색지도사 1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陳景林씨는 다양한 천연염색 작품에 대해 제작 과정과 방법 그리고 작품 설명과 함께 상업적인 작업부분에 대해서도 사례를 소개하였다.

강의에 참가한 천연염색지도사들은 천연염색의 다양한 분야를 알게 되었으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었다.



陳景林씨의 쪽염색 (작품명: 乾澗)



陳景林씨의 쪽염색 작품

제8회 대한민국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 문화체육부장관상 지원



▲ 제7회 대한민국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 수상자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의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지원된다.

정부시상지원공예분야공모전 심사위원이 2012년에 개최된 제 7회 대회의 심사과정 및 수상식 과정에 대한 실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대한민국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은 ‘천연염색 전통의 보존,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천연염색 디자이너들의 발굴과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공모전을 통해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유발, 한국적인 아름다움의 홍보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공모전은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 색깔있는 토요일을 만나다

재단법인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임성훈)에서는 ‘2013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주말 프로그램을 2013년 3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남문화예술교육광역센터에서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교과연계 천연염색 및 미술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꿈다락 토요일문화교

■ 상반기 천연염색지도사 과정 개강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지난 2월 20일부터 제5기 천연염색지도사 과정을 개설하여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천연염색지도사 과정은 수요일반과 토요일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수요일반은 2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토요일반은 3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된다.

■ 계산원의 꽃물담쟁이 나주시공방에 입주



▲ 계산원의 꽃물담쟁이 개업식

나주 장애인 거주시설인 계산원에서는 천연염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지난 3월 13일에 천연염색공방을 개업하였다. 계산원에서 개업한 천연염색 공방은 ‘꽃물담쟁이’로 나주시공방에 입주해 있으며, 장애우들이 염색하고 제작한 천연염색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천연염색 체험도 실시하고 있다.

■ 나주시 공무원, 천연염색 체험

전남 나주시는 민선 5기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주천연염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천연염색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1기를 시작으로 4월까지 총 5기로 나누어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천연염색교육과 실습은 나주천연염색의 발전전략, 염색체험 등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나주시는 상반기 교육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 단체 등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에 의하면 나주시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천연염색과 접촉 기회를 늘리는 것은 나주의 천연염색산업을 이해시키고,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나주시 공무원의 천연염색 교육

■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협력기관 교육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3월 24일 및 25일 양일간 협력기관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천연염색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대만의 천연염색 작가인 陳景林씨를 초청하여 천연염색비즈니스 사례, 작품제작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 백송천연염색교육원 워크숍 성황리에 마쳐



▲ 백송천연염색교육원의 워크숍

부산 ‘백송천연염색교육원(원장 유창오)’에서는 2013년 3월1일부터 2일까지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부산백송천연염색교육원에서 제1

회 천연염색지도사 워크숍을 가졌다. 돈피의 콩즙 및 타닌 처리(강사 윤영숙), 돈피 1차염색(강사 유창오), 펠트염색 및 펠트 가공법 실습(강사 윤영숙), 채회염(강사 일본인 초청), 돈피 2차염색(강사 유창오), 돈피 후처리 및 평가로 진행된 워크숍에는 전국의 천연염색지도사들이 참석하여 열띤 호응을 받았다. 워크숍에 이어 백송천연염색교육원 내 모임을 결성하였는데, 회장에 장세자(상주) 부회장 이 유담(영천) 부회장 송재봉(청도) 감사 이경미(부산) 사무국장 김호웅(부산) 지도사가 선출되었다.

나주시천연염색공방 방문객 증가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에 있는 나주시천연염색공방에 최근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 개관한 나주시천연염색공방에는 12개의 공방이 입주해 있는데, 의류, 천연염색 패션소품, 인테리어 용품 등 각 공방마다 전

문화가 되어 있어 한 번의 방문시에 다양한 천연염색 제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인근의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천연염색 체험도 할 수 있어 천연염색을 보고 배우고, 쇼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나주천연염색공방



가shawot공방



최현천연염색공방



다미공방



어울리기

나주천연염색 공방 입주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	주력품목	연락처	업체명	대표	주력품목	연락처
목사골공방	김외경	천연염색 가죽지갑, 가방 등	010-4366-3691	다미공방	이선정	천연염색 침구류, 넥타이등	010-9850-7739
자운공방	윤귀옥	천연염색 가방, 소품 등	010-9214-9211	최현천연염색공방	최현순	천연염색 의류	011-9609-1125
한림원	김연임	천연염색 스카프, 소품 등	010-9877-7234	가shawot공방	박유진	천연염색 패션소품, 규방조품 등	010-3608-0060
자미	김미경	천연염색 소품, 인형 등	010-5250-4245	어울리기	김경란	천연염색 의류	010-2989-1659
어반디자인	양미해	천연염색 인테리어소품, 조명 등	010-5016-0513	에티크	고예림	천연염색 의류, 패션소품 등	010-7169-5372
호스디자인	이호정	천연염색 인형, 인테리어 소품 등	010-9627-9632	꽃물담쟁이	김계윤	천연염색 스카프, 넥타이 등	010-2894-2471



발행인 : 임성훈 /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이사장, 나주시장이 사: 이영규, 김왕식, 노은희, 윤여정, 이순경, 임철택, 최미성, 편 집: 김윤희, 김길수, 김대국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NAJU FOUNDATION OF NATURAL DYEING CULTURE

(우.520-931) 전남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379 한국천연염색박물관
Tel. 061-335-0091, 335-0098, Fax. 061-335-0092
http://www.naturaldyeing.or.kr